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6강 요한복음 5장

IN the beginning ^Rwas the ^RWord which gives light
with God, and the ^RWord was 10 He was in the world
God. He was in the world and ^Rthe world did not
with God. All things were made (that) by Him. He came to His own
through Him, and without Him was 12 But as many as
given life, and the life was in Him, to them He gave
in the light of men, and the light was in Him, to them He gave
the light of men, and the light was in Him, to them He gave

1-12장 (표적의 책)

표적과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신 예수

13-21장 (영광의 책)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신 예수

예수에 대한 증언 1:1-51	성전과 생수되신 예수 2:1-4:42 가나혼인잔치 니고데모 사마리아여인	생명의 떡이요 빛이신 예수 4:43-8:59 왕의 신하 아들 오병이어 간음한 여인	선한목자요 양의 문이신 예수 9:1-10:42 실로암 소경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11:1-12:50 나사로를 살리심	떠나시기 위한 준비 13:1-17:26 유월절 마지막 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다락방 설교(고별설교), 포도나무의 비유 보혜서 성령, 예수님의 증보기도	죽이심과 부활 18:1-21:25 예수님의 체포와 심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제자들에게 나타남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대중적 사역

제자들을 위한 소수 집중 사역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보고 믿는 믿음과 듣고 믿는 믿음”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
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
을 보고 따라온 것이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기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버
리고 떠날 모습이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1-3)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 된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두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요4:46)

-왕의 '신하'(바실리코스)는 왕족이거나 왕과 깊은 관계에 있는 높은 귀족을 뜻하는 단어다.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친척이거나 왕을 받드는 신하로 높은 귀족일 것이다.

-왕의 신하의 목마름 : 병든 외아들. 죽어가는 아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요4:47)

가나혼인잔치(2:1-12) 표적과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4:43-54) 비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요4:46)

1. 이야기 맨 앞과 뒤에 ‘**갈릴리 가나**’, ‘**갈릴리**’라는 지명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
2.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치유이다.
3. 둘 다 ‘사흘’이라는 시간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 있다.
4. 다른 표적과 다르게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이라는 수식이 붙어 있다.
5.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두 표적만이 예수님께 요청 되어진 것이다.
6. 둘 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만드신다.
7. 둘 다 **믿음의 반응과 순종이 있다(물떠온 하인들, 왕의 신하)**
8. 둘 다 사건 이후 믿는자들이 생기고,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뀐다.
예루살렘에서 불신앙적인 사건과 연결된다.

예수님의 반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하리라(요4:48)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손에 원하는 것을 쥐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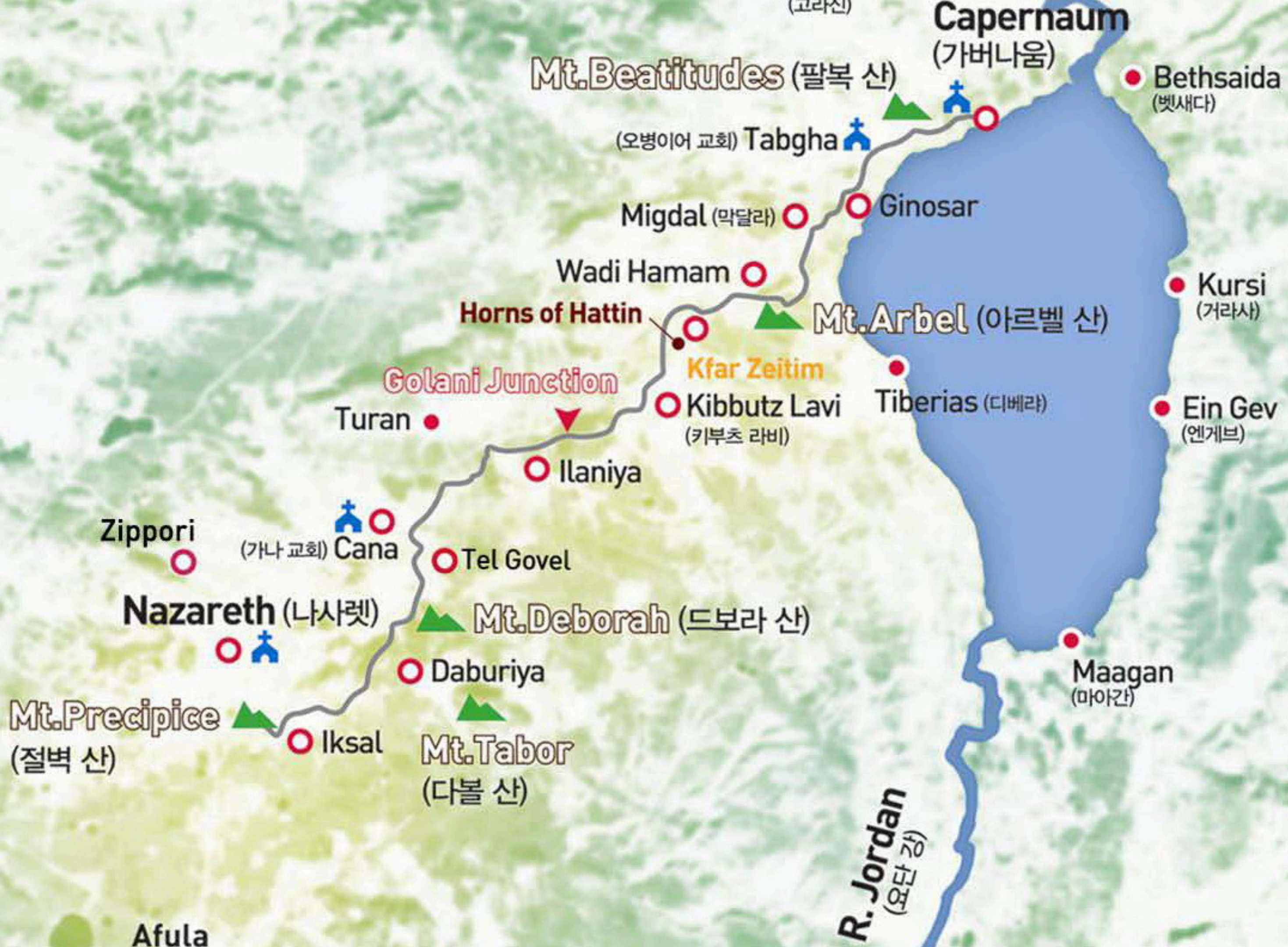
왕의 신하의 반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요4:49)

왕의 신하는 한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바로 뒤는 절벽이다.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 그분이 가버나움 자기 집에 오셔서 아들을 만져 주시기만 하면 살 것이라고 믿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신이 행한 일을 듣고 자식 살려보려고 이렇게 사정합니다. 제가 무어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왕의 신하의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요4:50)

예수님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신다.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Q.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왕의 신하의 관심이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다 죽어가는 이 사람 살리시는 것이다.

왕의 신하가 아들의 육신의 생명 살리고 싶었다면,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싶으셨다.

믿음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요 4:43~54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

- 1.듣기 : 예수가 오심을 **듣고**(47절)
- 2.행동 : 가서 청하되... 고쳐주소서(47절)
- 3.믿음의 반응 : **말씀을 듣고 가더니**(50절)
- 4.결과 : 아이가 살았다(51절),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53절)

왕의 명령을 듣고 즉시 실행하는 신하처럼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근거나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한다.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아들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다.

예수님 직접 가지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가버나움에 계신 것과 다름없다고 믿는 믿음이다. 표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을 믿는 것이다.

세상의 왕 헤롯을 따르던 자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가신 것과 다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과 다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예수님이 메스를 들고 수술하신 것과 다름없다고
믿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대로
이뤄지리라 믿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인격이고 사건이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은 선택이 동반된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믿음은 의미가 없다.

사랑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사랑은 의미가 없다.

믿음과 사랑은 늘 선택의 결과이다.

믿음은 우리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이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지라(요4:51-52)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자식 잃을 뻔한 집에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주시며
초상집이 될 뻔한 그의 집을 잔칫집의 기쁨이 되게 하셨다.

어제 일곱시 : 오후 1시인데, 유대인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

절기와 요한복음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 안식일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생명의 떡: 유월절

요한복음 7-8장 명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 초막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고 그림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섬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2: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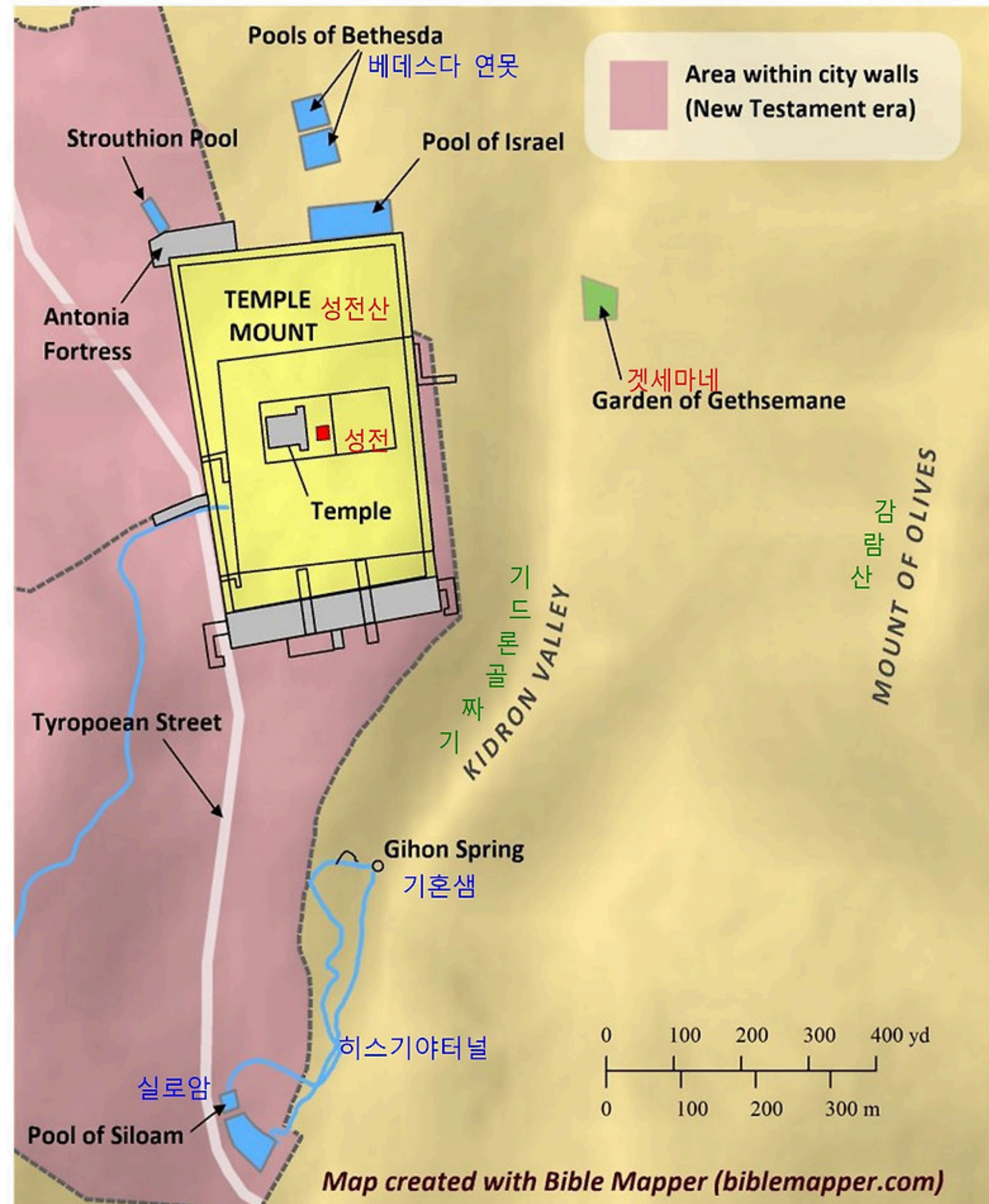
5장의 주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무엇인가?

절기(축제)의 예루살렘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요5:1-2)

양문 : 희생제물인 '양'이 들어오는 문. 한양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서소문,
시구문이 있었듯이 예루살렘 성에는 어문, 마문, 골짜기 문, 동문, 샘문 등 여러
개의 문이 있었다.

베데스다 : 벨+헤세드의 합성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로 인해
빗물을 저장해 놓는 저장소가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저장소 가운데
하나였다.



축제와 다른 분위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요5:3-4)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지만 성전에게서 예배할 수 없는 인생들이다. 구약의 부정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진리가 사라진 곳에 신화가 자리잡았는데, 베데스다는 안식을 얻기 위해 인간이 만든 거짓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

무색한 이름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 얼핏 보면 기회가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빨리 본 사람,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 가장 빠르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차별의 장소이다.

가끔 물이 동하면 서로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이웃도 밟고 친구도 밀쳐야 하는 가장 사랑이 없는 장소, 그래서 말 뿐인 베데스다였다.
희망을 가질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날마다 희망고문이 벌어지는 곳
이 세상의 모습과 같다.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5:5-6)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 팔 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신2:14)

38이라는 숫자는 광야를 걸었던 시간으로 '고난', '고통'을 의미한다.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한 사람, 또 다시 38년이 주어져도 그대로 있을 사람

-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면 조금도 가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세상의 신화, 성공을 쫓으며 돈으로 명예로, 학위로, 거기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서 베데스다로 가시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다, 가끔 물을 움직이는 천사도 아니다. 가망 없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진정한 자비의 집이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신 것이 아니다.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가망 없는 환자들, 잊혀진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인 아픔의 자리를 찾으셨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망없는 사람, 38년 동안 고통을 받아 원망과 절망이 몸의 일부가 된 사람을 찾으셨다.

38년된 병자의 반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요5:7)

38년 된 병자가 찾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여전히 그에게 살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은가? 세상에서 나를 좀 더 앞서게 해주는 하나님, 남보다 더 빠르게 더 높이 성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기적을 보고 찾아온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

안식일에 주어진 참 안식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요5:8-9)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를 연못까지 빨리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연못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시고,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주신다.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 주는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왜 안식일일까?

안식일 전날이면 안되는가? 안식일 다음날에 고치시면 안되는가?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것을 아시면서 굳이 안식일에 고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요5:10)

유대교에는 사랑없이 율법과 형식과 전통만 남았다. 안식일의 정신은 없다
38년된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난 것에는 관심없다. 오직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은 것이 안식법에 문제가 되는지만 따진다.

유대인의 안식일 규례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오해

예)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고 간단한 응급조치만 한다. 침을 뱉어서 땅이 파이면 밭을 간 것이 되기에 안식일을 어기게 된다. 그래서 굳이 침을 뱉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바위에다 침을 뱉는다.

안식일에는 천 보 이상 걸을 수 없다. 손수건도 나를 수 없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
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
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20:10-11)**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날이다. -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다.

왜 안식일에 고치시는가?

마태복음의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누가복음에 18년동안
귀신들린 여자를 안식일에 고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과 수고와 질병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물러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안식일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
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날이기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
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사35:5-6)

유대인들의 반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요5:18)

예수님의 설명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5:19)

고대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가업 전승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설명
가업을 계승할 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함
목수, 농사, 도자기, 대장장이 등

우리의 반응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4-25)

왕의 신하처럼, 38년된 병자처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5:20-21)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다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와 38년 된 병자의 치유 비교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4:43-54)	38년 된 병자의 치유(5:1-18)
갈릴리 가나(46)	예루살렘(1)
왕의 신하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찾아옴	예수가 적극적으로 병자를 찾아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50)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
말씀을 믿고 감>아들이 살아남(51)	곧 나아서 자리를 들어서 걸어감(9)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53)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됨(16)